

# 한석우 리비아 트리폴리 무역관장 피랍

## 무장괴한 4명에 퇴근길 납치 당해

### 정부 합동대책반 설치... 특별여행경보

리비아에서 근무하는 한석우(39) 코트라 트리폴리 무역관장이 19일(현지시간) 퇴근 길에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무장괴한들에 피랍됐다.

리비아에서 한국인이 피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외교부와 코트라에 따르면 한 관장은 19일 오후 5시30분(한국시간 20일 오전 1시30분)께 퇴근하던 중 트리폴리 시내에서 개인회기 등으로 무장한 괴한 4명에 의해 납치됐다.

한 관장은 피랍 당시 이라크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타고 있었다. 괴한들은 자신들의 차량으로 한 관장이 탑승한 차량을 추월해 앞을 막고 강제로 정차시킨 뒤 한 관장을 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괴한들은 운전사는 두고 한 관장만 자신들의 차량에 태운 뒤 서쪽으로 도주했으며, 이라크인 운전사는 사건 발생 직후 주리비아 한국대사관에 피랍사실을 알렸다.

주리비아 한국대사관은 즉각 리비아 외교부와 국방부, 정보부, 경찰 등 관계 기관과 지역 민병대 등을 접촉해 피랍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안전한 석방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아직 한 관장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납치범과 접촉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납치를 감행했다고 주장하는 단체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주리비아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최대한 신속히 안전하게 석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리비아 일각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저질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달 1일 발생한 트리폴리 FM 라디오 음악방송 사장의 피살 사건 주동자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의심받고 있다. 납치세력이 알카에다 세력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확인된 것은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납치범들이 한 관장을 특정해서 미리 피랍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관계부처와 코트라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이집트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리비아에 전역에 여행금지령을 권고하는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했다. 리비아에는 18일 현재 551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

코트라 내에서 대표적인 중동전문가로 통하는 한 관장은 2012년 7월 트리폴리 무역관장으로 단신 부임해 현지 인턴 직원 몇 명과 함께 근무해왔다.

한 관장은 2005년 코트라에 입사했으며 트리폴리 무역관장으로 근무하기 직전에는 이란 테헤란 무역관에서 일했다. 한 관장의 가족은 플라에서 지내고 있다. /연합뉴스



코트라 한석우 리비아 트리폴리무역관장 피랍 사건과 관련해 20일 오후 대형 리비아 지도가 내걸린 서울 도렴동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대책반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국내 체류 외국인 작년 157만명

## 10년새 2배... 영암 주민의 9.6%

### 영등포구·금천구 10% 넘어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최근 10년 사이 2배 이상으로 늘어 150만명을 훌쩍 넘어서는 등 우리 사회의 다문화, 다인종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2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작년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57만 6034명을 기록하며 연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15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004년 체류 외국인 수가 71만8000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10년 사이에 외국인 수가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체류 외국인은 또 전체 인구의 3.08%를 차지해 체류 외국인은 재외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가 도입된 직후인 2008년 106만2000명을 기록하며 체류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77만8000여명(49.3%)으로 가장 많고, 이어 미국 13만

4000여명(8.5%), 베트남 12만여명(7.6%), 일본 5만6000여명(3.6%) 순이다.

체류 목적별로는 방문취업자 등 외국인 근로자가 54만9000여명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재외동포 23만5000여명, 결혼이민자 15만여명, 영주자 10만여명 등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크게 늘면서 외국인 주민 비율이 5%를 넘어선 지방자치단체도 22곳에 달하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1월1일 기준으로 파악한 지자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당시 기준 외국인 주민 144만 5000여명)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영등포구(13.7%, 5만3천여명)와 금천구(10.8%, 2만6천여명)였다.

이들 지자체를 비롯해 서울 구로구(9.7%), 경기도 안산시(9.0%), 전남 영암군(9.6%) 등 지자체 22곳의 외국인 주민 비율이 5%를 넘어섰다. /연합뉴스

# 부림사건 피해자들 노 전대통령 묘역 참배

영화 '변호인'의 소재인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21일 오후 3시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인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을 찾는다.

20일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따르면 고희석(56)씨 등 부림사건 피해자 10여 명은 21일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다.

이들은 1981년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노무현 변호사의 고뇌와 열정을 되새기며 감사의 뜻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노 변호사의 부인으로 함께 어려움을 겪은 권양숙 여사도 예방해 고마움을 표시할 예정이다.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설명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사건이다.

그 가운데 19명이 기소돼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에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다.

영화 '변호인'은 개봉 33일 만인 지난 19일 관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 /연합뉴스

# 北, 2014인천아시안게임 참가 첫 시사

### 중앙통신 "축구 남녀팀 참가"

북한이 오는 9월 개막하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처음으로 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올해 북한 축구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경기를 소개하면서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벌어지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축구경기에 남녀 축구팀들이 다 참가한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통신은 다른 종목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동안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2014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인천시 등은 북한의 참여를 설득해왔으나 아직 북한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OCA 회원국 45개국 중 44개국이 인천 아시안게임의 참가를 약속한 가운데 북한만이 참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북한이 대회 참가를 원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참가인원 신청 마감일인 오는 6월 20일까지 선수단 규모를 정해 조직위에 통보해야 한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홍보 관계자는 "북한의 아시안 게임 축구경기 참가를 환영하고 여타 모든 종목에도 참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1700개 무장단체 난립 통제 불능 '국가비상사태'

### ■ 카다피 축출 2년 지난 리비아는?

한석우(39) 코트라 트리폴리 무역관장이 19일(현지시간) 피랍된 리비아는 바로 전날인 18일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될 정도로 통제 불가능한 혼돈의 상태다.

리비아를 40여 년 동안 철권통치하던 무아마르 카다피 전 국가원수가 지난 2011년 10월 반군에 살해되며 '아랍의 봄'이 오는 듯했지만, 지난 2년여 과도정부가 리비아를 장악하는 데 실패하며 약

1700개의 무장단체가 현재까지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전국 각지에서 각종 이권을 놓고 서로 총을 겨누며 유혈사태를 벌이고 있다.

특히 동부지역에선 유전과 항구를 몇 개씩을 장기점거하고 정부와 교전을 벌이는 대형 단체까지 등장했다. 몇몇 단체는 따로 자치정부까지 세웠다.

이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테러나 납치

도 빈번하다.

지난 2012년 9월 리비아 동부 뱅가지 주재 미국 영사관이 이슬람 무장단체의 공격을 받으며 미국 대사 등 미국인 4명이 사망한 사태가 대표적이다.

리비아 내 한국 기업이나 교민들을 상대로 한 납치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무장강도는 지난해 10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외교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무장단체는 카다피에 맞서 싸우던 반군과 실업 상태인 친(親)카다피 자경단원, 리비아 내전 기간에 풀려난 죄수 등이 주

축이다. 일부 이슬람계 무장단체는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와 연결돼 있는 등 구성이 복잡하다.

그러나 과도정부는 현재 정규 병력이 부족해 옛 반군세력 일부에게 지역치안을 '위탁'한 상태다. 이 때문에 부실한 치안을 타고 과격 이슬람주의 세력이 득세해 야만된 위장방승인 알자지라가 "(리비아는) 무장단체의 천국"이라고 지적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지난해 10월엔 알리 제이단 과도정부 총리가 무장단체에 억류됐다가 몇 시간 만에 풀려나는 초유의 사태도 있었다. 이 달 18일엔 친 카다피 무장단체가 남부 세브라 인근 정부 공군기지를 점거하자 의회가 결국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연합뉴스

## 公告

### 利川徐氏 尙書公 大同譜 編纂

(이천서씨 상서공(감무공) 대동보 편찬)

壬子譜 (1972년 발간) 이후  
42년 만에  
대동보를 편찬 합니다

1. 책으로 된 대동보는 이번이 마지막이오니 후손들은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2. 2011년말부터 공고(홍보)를 하였으며 2014년 3월 30일 수단 접수를 마감 합니다.
3. 아직까지 접수 못 한 종친에게 널리 알려 편찬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바랍니다.

**兵部尙書公 編纂事務所**

서울 TEL. 02-793-8252 FAX. 02-795-1831  
광주 TEL. 062-672-2002 FAX. 062-672-2001

##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 1인당 예금비과세

#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 희망공인중개사

### 고객님의 성공을 희망합니다

#### 상가/건물

- ▶서구 치평동 신축건물 매 75억
- ▶화정동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3억(보1.3억, 월6000만 유영프렌차이즈 입점)
- ▶8층사우나건물-일부층 원룸 매 17.5억(보8천,월8백,용9.5억 포함, 직영수입 월천만)
- ▶월계동LCE타워 2층상가 960㎡ 매 19억, 분할가(대형병원, 학원, 외식프렌차이즈 적합)
- ▶서구 이파동상가 1,800㎡ 매 10억(보 1.1억, 월610만, 용5.9억포함)
- ▶신창동 상가건물 매매 27억, 매매 15억

#### 대지/전답

-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대지 404㎡ 매매 8억
- ▶서구 마북동 생산녹지 답 5,400㎡ 매매 21억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29,800㎡ 41억
- ▶북구 용두동 1층주거지역 나대지 2,050㎡ 매매 6.9억
- ▶회촌 동면 계획관리지역 전, 임야 17,200㎡ 매매 2.5억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전 17,000㎡ 매매 5.2억

#### 기타

- ▶세하동 창고 1,590㎡(건234㎡) 매매 7.2억
- ▶영암 삼호중공업 인근 주유소 매 8억(용 5억)

광주, 전남권 매도 매수 상담, 접수 환영합니다

서구 치평동 라인동산아파트 102동 앞 상가 108호

☎ 010-5536-0382 062) 373-0382

##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